奉祝隨想

수보리처럼 부처님 맞이하기

이미령
불교강사
경전이야기꾼





그림 · 최주현

수보리처럼 옷 깁다가 문득 佛法에 마음 열리는 것
가장 법답고 아름답게 부처님을 맞이하는 의식이다

사월초파일은 아기 싯다르타가 어머니 마야왕비에게서 태어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날을 부처님 오신 날이라 부릅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을 굳이 '오신 날'이라 부르는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귀한 분이 오셨으니 서둘러 맞으러 나가야겠지요. 그런데 부처님에게는 당신을 맞이하는 화려한 연회보다 더 기쁘게 받아들이는 환영 인사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무엇이 오신다는 말일까? 오신다는 것은 무엇일까? 맞이하는 이 '나'는 무엇일까?'

수보리 존자처럼 옷을 깁다가 몸을 일으키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에 사무쳐서 부처님 평소 가르침에 마음이 탁 열리는 것, 부처님 오신 날에 가장 법답고 아름답게 부처님을 맞이하는 의식입니다. 부처님,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부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제자 아난을 거느리시고 마을로 들어오셔서 탁발을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부처님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자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부재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안타까워 아나율 존자가 하늘눈으로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다 부처님을 찾아냈습니다. 부처님은 저 위의 하늘, 그러니까 제석천의 세계인 삼십삼천(도리천)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룸비니 동산에서 당신을 낳고 7일 만에 세상을 떠나 천상의 신으로 태어난 생모 마야부인을 만나 법문을 들려주고 아울러 천상의 신들에게도 진리를 들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저 삼십삼천 도리천에 계십니다."

아나율에게서 이 소식을 들은 목련 존자가 천상으로 올라갔지요. 지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부처님을 그리워하는지 알려서 하루라도 빨리 인간 세상으로 오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천상으로 올라간 목련 존자에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7일 뒤에 상카시아국 큰 연못가로 내려가겠다."

목련 존자는 서둘러 지상으로 내려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부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고, 너도 나도 기쁨에 겨워 환호성을 질렀지요.

"부처님이 오신다! 여래께서 오신다!"

"우리 모두 7일만 참읍시다. 다시 부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그날로부터 상카시아국 큰 연못가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나라의 왕들은 군사들까지 총동원하였습니다. 마치 나라에 외국의 국가원수가 방문하면 가장 멋진 의장대 사열을 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세력을 맘껏 부리며 가장 근엄한 분위기를 연출하려 하였지요. 부처님이 오신다는데 그 누가 환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천상에서는 하늘의 꽃을 뿌리며 분위기를 돋우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우리에게 오시는 부처님에게 올릴 소중한 공양물을 들고서 연못가에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지요.

스님들도 저마다 설레고 들뜬 마음으로 부처님을 맞으러 연못가로 나아갔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부처님을 맞이할 것인가?

연못가로 몰려드는 사람들은 이 행운의 주인공이 누구일지도 궁금했습니다. 귀한 분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은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쌓아야 그럴 수 있으리란 생각도 했지요.

약속대로 7일째 되는 날 홀연히 연못가에 세 갈래 보석 길이 하늘로부터 지상으로까지 펼쳐졌습니다. 제석천이 부처님의 무사귀환을 위하여 천상의 신들에게 명한 것입니다. 가운데 황금 길은 부처님이 밟고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길이요, 양쪽으로 은과 수정으로 만들어진 길은 부처님을 호위하는 제석천과 범천이 밟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천상에서 지상으로 이어진 보석 길을 밟고 내려오시는 부처님 앞으로 사람들이 앞 다투어 나아갔고 부처님은 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그들의 외로웠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빠진 이가 한 사람 있었지요. 조금 떨어진 라자가하의 기사굴산 산기슭에서 옷을 깁고 있던 수보리 존자입니다. 부처님이 자리를 비운 석 달은 지상의 스님들에게는 안거 석 달 기간이었고, 안거를 마치면 스님들은 너나없이 손수 자신의 옷을 살펴 수선하는 것이 의무였지요.

부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수보리 존자는 서둘러 바느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급해서 바느질을 도중에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수보리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뵈려고 하는 부처님은 과연 무엇인가? 눈 귀 코 입 몸 뜻을 지닌 존재가 부처님인가? 또 달려가서 맞이하려는 이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 땅 물 불 바람의 4대로 이루어진, 덧없기 짝이 없고 그저 연기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천상에서 오신다는 저 부처님도, 맞이하려고 나아가려는 이 나도 실체가 없어 텅 빈 것인데, 이렇게 텅 빈 것이라면 과연 오는 것은 무엇이고 맞이하는 것은 무엇이란 말일까?'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께서 게송으로 일러주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부처님에게 절하려거든/눈앞에 보이는 형상은/덧없다 관찰하여라.

과거 부처님들도/미래 부처님들도/현재의 부처님처럼 모두가 덧없는 것이다.

부처님에게 절하려거든/지나간 과거와 다가올 미래/그리고 지금 현재 이 모두가 텅 비었다고/'나'라고 할 것이 없다고 관찰하여라."

수보리 존자는 거듭 생각했습니다.

'모든 법은 비고 고요하니 무엇이 '나'이고 무엇이 '부처님'일까?'

여기에까지 생각이 미친 수보리 존자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진실한 법의 덩어리(법신)에 귀의하리라."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아 옷을 깁기 시작했습니다.(〈증일아함경〉 제28권)

연못가에 드리워진 세 갈래 보석 길을 밟고 내려오신 부처님은 대중에게 말씀하셨지요. "나를 진정으로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은 수보리이다."

사월초파일은 아기 싯다르타가 어머니 마야왕비에게서 태어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날을 부처님 오신 날이라 부릅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을 굳이 '오신 날'이라 부르는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귀한 분이 오셨으니 서둘러 맞으러 나가야겠지요. 그런데 부처님에게는 당신을 맞이하는 화려한 연회보다 더 기쁘게 받아들이는 환영 인사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무엇이 오신다는 말일까? 오신다는 것은 무엇일까? 맞이하는 이 '나'는 무엇일까?'

수보리 존자처럼 옷을 깁다가 몸을 일으키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에 사무쳐서 부처님 평소 가르침에 마음이 탁 열리는 것, 부처님오신날에 가장 법답고 아름답게 부처님을 맞이하는 의식입니다. 부처님,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社說

일상회복 첫걸음 '부처님 마음'

길고 어두웠던 3년 4개월이라는 터널을 지나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으로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된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 오색 연등이 거리를 장엄하고 환희의 봉축탑이 전국을 밝힌 오늘, 불자들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되새긴다.

신들의 세계인 천상, 뭇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인 천하를 모두 통틀어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고 설하신 부처님. 천상과 천하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면 그보다 더 존귀한 건 없다는 가르침이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을 자아 상실의 시대라고 말한다. 돈과 권력, 명예에 눈이 멀고 정신이 팔려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믿으며 살아간다. 나는 남들보다 덜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인가. 자등명법등명의 가르침을 따라 내가 아닌 것에 의지하지 말고 자신과 진리에 의지할 때다.

그렇게 스스로 자유와 행복을 얻었다면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가 밝혀야 하는 것은 단순히 형형색색의 연등이 아닌 마음의 등불인 이유다. 다 타고 나면 사라지는 촛불이 아닌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우리의 마음. 1년에 한 번이라도 이웃과 아픔을 나누고,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자비의 손길을 뻗는 인드라망의 정신.

'일념즉심 무량겁(一念卽心 無量劫)' 한 생각에 무량겁이 다 들어있고 생각 하나만 바꾸면 그것이 곧 행복이고 기쁨인 극락세계다. 등을 달고 향을 피우고, 아무리 좋은 공양물을 부처님께 바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졌던 그 마음이야말로 긴 터널을 뚫고 나온 세계인을 위한 일상회복의 첫걸음이다.

이제 다시 전법의 길을 가자

"천년을 세우겠다는 간절한 서원으로 우리 사회를 보살피며 전법 포교의 길에 진력하겠다."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연등법회에서 밝힌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의 봉행사 중 일부다. "전법 포교의 길에 진력하겠다"는 다짐은 최근 한국불교의 화두인 '전법'을 다시금 일깨운다.

지난 3월 23일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법회에서 "금생에는 '부처님 법 전합시다'로 살아가자"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의 회향사는 한국불교계에 큰 울림을 줬고,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시대과제가 됐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성도 이후 다섯 비구에게 설법한 뒤 교화활동을 이어갔다. 곧 60명의 제자가 생겼을 때 제자들에게 "비구들이여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전법을 떠나라"라고 전도선언을 내린다. 이 전도선언에서 불자의 의무가 바로 전법과 교화임을 알 수 있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를 강조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다. 불교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법을 전하는 것'이다.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는 불교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정언명령이기도 하다. '상월결사 108원력문'은 우리가 어떻게 불교를 전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 지침이 담겼다. 그 지향점도 실천불교, 사부대중 불교, 사회와 세상에 기여하는 불교로 명확하다.

원력을 세웠으니 이제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다시 전법의 등불을 밝히고 나아가자. 인천(人天)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불기2567년
BTN 불교TV
부처님오신날 특집 프로그램 안내

특별생방송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5월27일(토) 10:00, 22:30

문광스님 미국에 가다 (1, 2부 연속방송)
5월23일(화) 19:30
5월26일(금) 07:30
5월28일(일) 22:00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미래를 여는 천년의 가르침
5월24일(수) 13:00, 22:30
5월29일(월) 20:30

'사가다와' 다람살라의 부처님 오신날 풍경
5월25일(목) 07:30
5월26일(금) 23:15
5월29일(월) 12:00

미얀마 스님의 탁발
5월26일(금) 19:30
5월28일(일) 07:00
5월29일(월) 23:15

상월결사 인도순례 스님의 눈물(1, 2부 연속방송)
1부 달빛 눈부처 / 2부 전법의 마중물
5월27일(토) 08:00
5월28일(일) 13:00
5월29일(월) 22:30

환상의 섬 욕지도, 魚관음보살을 모시다
5월26일(금) 21:30
5월27일(토) 07:30, 19:30

성타대종사 수행 70년 노을을 등지고 달을 벗 삼아
5월25일(목) 09:30, 21:30
5월26일(금) 15:30

불기2567년 법륜스님 봉축법문
5월28일(일) 21:00
5월29일(월) 13:00
5월30일(화) 23:30

불법(佛法)유턴
5월22일(월) 12:00, 20:30

자현·광우스님의 끝판 맛수다
5월24일(수) 07:30, 19:30

시간의 비밀코드를 풀다
5월23일(화) 23:15

BTN 채널안내 | olleh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